



지난달 30일 오후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폐회식에서 참가국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연합뉴스

# 미얀마 시위 군정 승리로 끝날 듯

미얀마 국민들의 반(反)정부·민주화시위에 대한 군사정권의 무력진압이 유혈사태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 군부가 결국 승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시위 11일째인 지난달 28일부터 시위의 열기가 크게 수그러든 데다 양곤과 만달레이 등 시위 중심지로 증강 병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양곤은 숨죽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면 가난한 사람들은 굶게 될 것"이라며 "일은 해야 하지만 집에 그냥 있고 싶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감바리 특사 이용산 수처 면담=유엔 미얀마 특사인 이브라힘 감바리가 미얀마 야권 지도자 아웅산 수처 여사와 군부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외교관들이 지난달 30일 밝혔다.

의명을 요구한 외교관들에 따르면 감바리는 군부 지도자들과 만났는데 이어 수처 여사와의 면담을 위해 양곤의 대학가에 있는 국가 게스트 하우스로 안내됐다.

## 양곤 등 진압군 속속 증강...시위대 현저히 줄어

◇양곤 시민 '군부 승리 가능성' 우려=미얀마 군사정권의 폭력 진압으로 인해 시위 참가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양곤과 만달레이로 증원 병력이 도착하면서 양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이대로 종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의명의 한 아시아 국가 외교관에 따르면 전날 밤과 이날 새벽 사이에 진압군의 수가 늘어났고 다른 소식통들도 양곤과 만달레이에 진압군이 추가 배치됐다고 밝혔다.

폭력 진압이 계속되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호업무에 종사했다는 한 주민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

## 감바리-수처 여사 면담 관심...중 평화적 해결 촉구

◇'평화적 해결' 촉구 있따=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중국 최고위층에서는 처음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 총리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미얀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얀마의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빨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연합뉴스

# 불능화·신고 이행 맞춰 중유 제공

## ■'2단계 로드맵' 뭉클 담았나

◇합의문 무엇을 담았나=이번 합의문의 최대 성과는 비핵화 2단계인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영변 5MW원자로·재처리시설·핵연료봉제조공장 등 주요 핵시설의 불능화를 연내에 이행한다는 북한의 약속을 문안에 담은 것이다.

다만 합의문은 불능화의 기술적 방법, 신고할 대상 등을 상세하게 열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무그룹 차원에서 이미 불능화 방법·신고 대상 등과 관련해 합의돼 문서화한 것이 존재하며 이번 합의문에는 그런 실무회의 합의 내용을 모두 승인한다는 식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불능화의 주제, 불능화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초보적인 내용은 이번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합의문은 미국이 북한의 '불능화·신고 연내 이행'에 맞춰 이행하기로 북측과 합의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교역법의 종료 계획도 추상적으로 담았다.

아울러 한·미·중·러 등 4개국이 불능화와 신고 이행에 맞춰 북에 제공하기로 한 중

부핵 6자회담 수석대표 차원에서 30일 타결된 합의문은 2.13 합의에 명시된 비핵화 2단계 조치인 신고·불능화를 연내에 마치기 위해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들이 각각 이행할 행동 계획을 담고 있다. 각 참가국들이 이들의 휴회기간 문안에 대한 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합의문은 공식 채택된다. 그러나 회담 참가자들은 이번이 없는 한 2·13 합의문에 이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시공도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北 테러지원국 해제·적성국교역법 등은 추상적 언급

유 95만t 상당의 지원과 관련, 4개국이 번갈아가며 매달 5만t씩 중유 45만t을 북에 제공하고 나머지 중유 50만t 상당은 발전소 개보수 설비로 지원되되 쌍방 준비가 되는 대로 제공한다는 계획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 도출 의미는=2·13 합의가 북한 핵시설 폐쇄·봉인 등 9·19 공동성명 이행의 제1단계 시공도면이라면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채택될 이번 합의문은 신고·불능화라는 제2단계 조치의 '시공도면'으로 볼 수 있다.

이행 과정에서 난항은 있을 수 있지만 연내에 신고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일단은 북한이 보유한 핵 역량이 날뎠이 공개된다.

또 이번이 6자가 합의한 불능화 수준이 원상 복구에 약 12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금 불능화 이행 후 1년 동안은 북한의 핵 능력 증산은 물리적으로 봉쇄된다.

극단적으로 말해 6자회담 틀이 깨지더라도 북한이 최소 1년간은 핵무기의 재료를 추가로 생산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이번 합의문이 완벽하게 이행될 경우 북한 비핵화의 5부 능선 정도에는 올라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문 이행에 난관은 없나=합의문이 도출되더라도 그 이행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 북한이 할 불능화·신고와 미국이 이행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의 끝을 비슷한 시간대에 맞출 수 있는지가 변수로 거론된다. /세이정=연합뉴스

## 물디브서 폭탄 터져 외국인 12명 부상

인도양의 섬나라인 물디브 수도 말레에서 지난달 29일 폭탄이 터져 외국인 관광객 등 12명이 부상했다.

모하메드 샤리프 물디브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말레의 이슬람 사원 근처에 위치한 관광객 휴게소인 술탄 공원에서 사제 폭탄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최소한 12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자들은 영국인이 2명, 중국인이 8명, 일본인이 2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상자 중 가벼운 화상을 입은 중국인과 일본인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마흐무드 사우게 관광부 장관이 전했다.

말레에서는 지난 1988년 쿠데타 시도 이

후 근 20년 간 폭탄테러나 총격 사건이 벌어진 적이 없었다.

샤리프 대변인은 영국 PA통신에 "과거 물디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다. 관광산업은 우리의 생명줄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폭발 사고 당시 술탄 공원에는 라마단 기간 아침을 먹기 위해 몰려든 주민 등으로 붐볐다고 샤리프 대변인은 설명했다. /뉴델리=연합뉴스

## “미얀마 사태 사망자 최소 200여명”

미얀마 군사정부는 유혈사태가 벌어진 지난 27일 에 흐트 대변인을 통해 양곤 시내에서 진압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일본 사진기자를 포함, 9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했으며 진압군도 31명이 부상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미얀마 국영언론은 희생자 수가 10명 정도라고 보도했다. 과연 그럴까?

밤 데이비스 미얀마 주재 호주 대사는 이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군정 당국이 나 국영언론에 밝힌 희생자 수 10명보다

훨씬 많은 시위대가 숨졌다는 미확인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희생자 수가 200여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反)군부 단체인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를 위한 미국 운동'은 유혈 진압으로 시위 참가자 약 2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뱅크=연합뉴스

## 나카이 기자 근접 총격 장면 日 TV에 잡혔다

### 미얀마 정부 발표 거짓 드러나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취재하던 도중 진압군의 총격에 쓰러진 일본인 저널리스트 나카이 겐지 기자의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일본 TV를 통해 방영되면서 그가 미얀마 군에 의해 '살해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 판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흐릿하고 떨리는 영상에는 시위 군중 속에 있던 나카이 기자가 한 군인에게 폐 말러 땅바닥에 쓰러진 뒤 정면에서 총을 맞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위 참가자들이 달아나는 가운데 나카이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만 뒤에 남았다.

영상 속에서 진압군은 시위대를 추격하기 전에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나카이 기자에게 총을 겨냥고 곧 "탕"하는



미얀마 민주화시위를 취재하던 27일 양곤시내에서 진압군의 총격을 받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일본APF 사진기자 나카이 겐지. 그가 진압군이 쏜 경고사격의 유탄을 맞고 사망했다는 미얀마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진압부대가 고의적으로 언론인을 겨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총성이 크게 들렸으며 총격을 당한 나카이 기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비디오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제약품 "기쁘고 건강한 좋은 미안 새끼입니다" 캠페인  
대한 "소비자가 좋은 좋은광고"를 시작합니다.

###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 비타민 A, C, E의 보충
- 유해미생물, 알콜, 수은기, 방사능, 항생제, 화학약품, 노년기
- 노년기 건조증, 안과, 이명증
- 지방산, 피부염, 동맥 경화, 식욕부진
- 17비, 근육통, 관절, 잇몸출혈, 미용학, 변비
- 심장질환, 당뇨, 폐경기, 고혈압, 수축기혈압, 수축기혈압
- 아연의 보충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ookjeong.com  
고객센터 080-022-2200

광고문의 023-1500